

[별지]

신청인별 배상내역

(단위: 원)

순서	신청인	주소	피해배상액(원)		
			계	정신적 피해	재정신청 수수료
합 계			3,403,140	3,393,000	10,140
1			436,300	435,000	1,300
2			436,300	435,000	1,300
3			261,780	261,000	780
4			261,780	261,000	780
5			436,300	435,000	1,300
6			261,780	261,000	780
7			261,780	261,000	780
8			261,780	261,000	780
9			261,780	261,000	780
10			261,780	261,000	780
11			261,780	261,000	780

# 이 유

## 1. 당사자 주장

### 가. 신청인의 주장

- 신청인 주거지는 다가구 주택으로 반지층 2가구, 1층 2가구, 2층 1가구, 3층 1가구, 옥탑 1가구 등 총 7세대, 1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. 2022년 6월부터 2022년 8월25일 기간 신청인 주거지 주택과 담벼락을 공유하는, 외벽 간 거리가 75cm에 불과한 ○○동 건물의 해체공사로 인한 소음, 진동, 먼지 등으로 신청인들의 신체적, 정신적, 물질적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
- 공사기간 중 월요일부터 토요일 07:30경부터 17:00경까지 집이 단번에 무너질 듯한 진동과 드드드득, 위잉하는 귀를 찢을 것 같은 80~99dB의 소음 등이 끊이지 않는 지옥같은 시간이었습니다
- 신청인은 해체작업 책임자라는 △△건설 이사, 철거소장 등과 10차례 이상 통화 및 대면의 방법으로, 정해진 시간대로 공사를 08:00부터 시작할 것,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진동이 심하고 소음은 견딜 수 없을 정도이니 현재의 작업도구와 작업방법이 최선인지, 진동과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, 피신청인은 “작업자들에게 8시에 시작하라고 전달하겠다. 나도 현장에 계속 있는 건 아니다. 힘든 거 안다. 이해한다.” 라는 말만 하였고 소음과 진동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.
- 토요일까지 공사를 하여, 15:00경 2층 거주자가 선정대표자에게 “주말이고 비도 오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. 조치를 좀 취해달라.” 라고 하여 선정대표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“1시간만 쉬었다가 해달라.” 고 요청하자 “우리는 법적으로 신고 다 하고 공사하는 거니까 그럴 수 없다.” 라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.

- 신청인 주택의 마당바닥 및 건물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고 주차장 지지대가 파손되기도 하였는데, 2022.8.9.에는 피신청인이 철거중 신청인 주택으로 담벼락을 무너뜨려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되어 2일 동안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.
- 신청인들은 지나친 소음과 진동, 먼지 등으로 공사 기간 중 귀에 휴지를 넣고 생활하기도 했고, 특히 3층에서 반려견과 거주하는 선정대표자는 공사기간 중 자택에 거주하며 스트레스, 불안, 두통, 불면증 등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아야 했으며, 가정주부인 2층 주민 및 재택근무자인 B1호 거주자도 견디다 못해 약국에서 약을 사 먹는 등 피신고인이 아무런 대책과 보상을 하지 않는 동안, 신고인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.
- 구청 환경과 담당 주무관에게 방문 및 유선으로 10차례 이상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데 대한 대책을 문의하고 해결을 요청한 바, 주무관은 “피신고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어요. 그러니까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. 내일 만나기로 하셨다면서요?” 라는 말을 2차례 하였고, 실제 신고인 측은 피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2차례 만난 사실이 있으나,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후에 주무관은 “아직도 보상을 못 받으셨어요?” 라며 반문하였고, 진동피해에 대하여는 측정이 불가하나 소음은 측정할 수 있다며 현장을 방문하였고, 2022년 8월에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함을 확인하고 △△건설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.
- 2022.8.24.에 신청인은 △△건설에 대하여 변호사에 의뢰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, 그제서야 △△건설 이사는 피해사실 및 요구사항을 메일로 보내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직접 메일을 발송하자, 답변은 “금전보상은 해줄 수 없고, 소송을 해라. 그런데 소송할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다. 여기는 다 전문 변호사가 있다.”, “이런 정신적인 문제나 건물 보수 같은 거 입증하시려면 힘들어요. 누수나 균

열 이런거 입증하셔야 하는데 어머니 그런거 입증하시려면 힘들어요.”, “이번에 철거하면서 2군데서 시끄럽다고 신고 들어 왔는데, 돈은 안 줍니다.”, “어머니가 죽다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. 다른 현장에서도 강남에 로펌사서 변호사 대고 하는데, 방법이 없어.” 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.

- 철거공사로 인해 피신청인은 돈을 벌고 신청인들은 지독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.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정신적, 신체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.

## **나. 피신청인의 주장**

- 당사는 전년도(2022년) 진행하였던 서울시 ○○구 ○○동 철거 공사현장에 대하여 회사의 입장을 밝히고자, 본 문서를 송부합니다. 당사는 위 현장은 관련법규와 안전관리를 준수하였고, 민원처리에 긍정적이고,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.
- 현장 인근에 거주하시는 선정대표자님의 소음과 진동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과 협의 하에 보상금액을 지급하였고, 선정대표자님이 거주하시는 건물의 낡고 기울어진 담장 또한 위험한 부분이 있어 민원해결 차원에서 재시공을 해드리기로 하였고, 그 외 당사와 관련이 없으나, 추가적으로 계단복도와 주차장 바닥 도색도 해드리기로 하였으나, 선정대표자님은 이 부분을 금전적으로만 해결하여 주기를 원하였고, 당 사에서는 규정상 그 이상의 민원을 현금으로의 지급이 불가함을 설명하였습니다.
- 또한 당사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기에, 당사의 의사를 표명드리는 바입니다.

## **2. 사실조사 결과**

### **가. 분쟁지역 현황**

- 분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으로 상가 및 사업장 등의 생활소음원의 영향이 적은 비교적 정온한 환경이다.

## 나. 신청인 주거 건물 현황

- 위 치 : ○○구 ○○동
- 용도지역 : 제2종일반주거지역
- 연 면 적 : 273m<sup>2</sup>
- 규 모 : 지하1층, 지상3층
- 주 용 도 : 다가구용단독주택(6가구)
- 구 조 : 연와조
- 사용승인 : 1996.12.4.

## 다. 피신청인 공사 현황

- 공 사 명 : ○○구 ○○동 건물해체공사
- 위 치 : ○○구 ○○동
- 철거연면적 : 658m<sup>2</sup>
- 규 모 : 지상 5층
- 공사기간 : 2022. 6.~2022. 8.
- 시 공 자 : △△건설

## 라. 관할 행정관서의 사업장 지도·점검 결과

- 공사장을 상대로 신청인의 소음 등의 피해민원이 관할구청(환경과)에 16차례 제기되어 2차례 공사장 생활소음 측정에서 1차례 기준초과로 행정처분 및 소음저감 등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있다.

### － 소음측정 일시 및 결과[측정지점]

- 2022. 8.12(금) 15:00 : 76dB(A)

### 3.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

- 당사 주장 및 관할 행정기관에서 측정한 소음 측정자료 등 사실조사 자료를 근거로 건물 철거작업 시 소음이 신청인 주거생활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였다.
- 건물 철거소음 측정결과
  - 일 시 : 2022. 8.12(금) 15:00~15:20
  - 측정기관 : ○○구청 환경과
  - 측정장소 : 신청인 주택
  - 입 회 자 : 신청인 측 선정대표자
  - 배경소음 : 53.7dB(A)
  - 측정결과 : 75.7dB(A)

#### 나. 진동 피해 평가

- 건설장비 발생하는 진동이 신청인 거주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.
- 피신청인 공사장내 투입된 건설기계(압쇄기)의 발생진동 레벨은 문헌 자료상 최대 61.0dB(V) (이격거리 5m 기준)이다. 따라서 공사장 진동레벨 수인한도(65dB(V))에 하회하여 진동도는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.

#### 다. 먼지 피해 평가

- 통상의 공사사례를 볼 때,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먼지 등이 일시적으로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등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, 피해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관계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, 먼지로 인한 정신적,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

### 4. 판 단

- 신청인 주택에서 소음도 측정결과 최대 76dB(A)로 평가되어 주거지역

공사장 생활소음 수인한도인 65dB(A)를 최대 11dB(A)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.

- 공사 장비 사용에 의한 진동은 통상의 공사 사례 및 신청인 주택에서 진동도 예측결과 최대 61dB(V)로 평가되어 주거지역 공사장 생활 진동 수인한도인 65dB(A) 이내로 평가되어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통상의 공사사례를 볼 때,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먼지 및 공사먼지 등이 일시적으로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등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, 피해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관계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, 먼지로 인한 정신적,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

## 5. 배상수준 검토

### 가. 배상책임

- 피신청인 주식회사 △△건설은 『환경정책기본법』 제7조(오염원인자 책임원칙) 및 『환경정책기본법』 제44조(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)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.

### 나. 배상범위

- 공사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신청인 선정대표자 등 11명에게 배상한다.
- 신청인 중 8명은 직장인 등으로 피해의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의 60%를 적용한다.
- 피해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 장비투입 일수 및 이격 거리 등을 고려하

여 1개월 이내로 한다.

## 다. 배상액

-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3,393,000원, 재정신청 수수료 10,140원을 추가하여 합계 3,403,140원이다.
- － 공사장 소음 피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
  - ▶ 435,000원[1개월 이내, 11~15dB(A)이하 초과] × 3명  
= 1,305,000원
  - ▶ 435,000원[1개월 이내, 11~15dB(A)이하 초과] × 0.6  
= 261,000원 × 8명  
= 2,088,000원
- － 재정신청 수수료
  - ▶ 435,000원 × 0.3% = 1,300원 × 3명 = 3,900원
  - ▶ 261,000원 × 0.3% = 780원 × 8명 = 6,240원

## 6. 결 론

-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 결과, 관련 서류, 전문가 의견,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